

# 남원시,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 남원소방서앞 도로개선 · 광한루원 주변 관광기반 구축 등 사업추진 탄력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행정자치부로부터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이환주 시장과 이용호 국회의원이 행정자치부 장관·차관 등 정부 관계자를 수차례 방문해 지역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지역 현안수요 항목인 남원소방서앞 도로 개선사업 5억원과 광한루원 주변 관광기반 구축사업 5억원 등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

관계부서에서 따르면 남원소방서앞 도

로 개선사업은 도로 폭이 좁고 인도가 없으며, 소방차량 긴급 출동시 차량통행 불편과 사고다발 구간으로 지역주민들이 수차례 건의한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광한루원 주변 관광기반 구축사업은 광한루원 주변환경의 열악함과 접근성이 어려워 관광객들이 방문을 외면하고 있고 지역상가의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주차장 등 주변환경을 정비하여 관광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시장과 국회의원이 협력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함으로써 내년도에 전체 공정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환주 시장은 "지역 주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소소한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시장과 국회의원 역할이 따로없이 충분히 협력하여 국가에 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가축전염병 선제적 예방 총력

### 전북동부권고추센터서 AI 현장방역 가상훈련 실시... 단계별 대응 요령 등

임실군이 AI 등 가축전염병 선제적 예방을 위해 가상훈련을 비롯해 방역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일 성수면 소재 (주)전북동부권고추센터에서 'AI 현장방역 가상훈련(CPX)'이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AI 발생에 대비하고 단계별 대응 요령 및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초동대응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심민 군수를 비롯해 문영두 군의장, 임실축협, 임실치즈농협, 농가, 생산

자단체와 전북도, 가축방역본부, 수의사회 관계자 등 180여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모의훈련을 시작으로 고병원성 AI발생 의심축 신고에서 종식까지 단계별 방역조치와 거점소독장소 운영 및 호기·호열식 살처분(매몰) 현장 시연이 진행됐으며, 이중환 전북도 축산과장의 총평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군 관계자는 "AI 긴급행동지침(SOP)과 위기 단계에 따른 대응요령을 익히고 현장에서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심민 군수는 "공들여 키운 자식 같은 닭, 오리 등을 질병으로 잃어야 하는 참혹한 일이 우리지역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훈련을 통해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 인식을 새롭게 다지고 선제적 차단 방역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10월 1일부터 구제역·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11월부터 상수도요금 30% 인상

### 상수도시설 운영 어려워

순창군이 11월 상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요금을 30% 인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02년 30%, 2012년 10% 인상 이후 정부의 물가안정정책에 부응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감안하여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인상을 억제해 왔으나 상수도시설의 운영비 상승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순창군의 상수도 생산원가 대비 현실화율은 35.5%로 전라북도 평균 현실화율인 78.5%의 절반수준이며, 군 지역 평균 현실화율인 38%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저렴한 상수도요금의 징수는 매년 상승되는 상수도 생산비용과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순창군은 올해 30%를 인상하고 2017년과 2018년 9월에는 각각 23%, 19%를 인상하여 67.4%까지 현실화율을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100%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은 관할하는 행정자치부에서도 오는 17년까지 90%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 중앙부처는 상수도 독립재산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열악한 재정상태로 상수도를 생산하지 않도

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수도요금이 현실화됨으로써 수도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낭비되는 수도물을 활용하여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 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15년 기준 순창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69.1%이며 마을상수도를 통해 생활용수를 해결하고 있는 마을에서도 지방상수도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상규 환경수도과장은 "군민들이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하고 물 부족 국자인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수도물 절약은 물론 동절기 상수도시설 보온 조치 등을 하여 수도물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 남원시, 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 출장서비스 실시

### 개설대상자 67명 한해

남원시는 2일 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2 개설대상자 67명의 가입편의를 위해 전주 하나은행에서 우리시를 직접 방문해 가입해주는 출장서비스를 시청 로비에서 실시한다.

그동안 남원지역 가입대상들은 희망키움통장2 가입을 위해 지정은행인 전주 하나은행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스러워 했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고 민원인에게 편의제공을 위해 담당자는 하나은행에 출장방문 개설서비스를 요청하였고 은행에서는 흔쾌히 수락을 해주어 출장가입서비스를 제공 할 수가 있게 되었다.



여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시민들의 늘어나는 복지요구에 발맞추어 내년도 위와 같은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처리하는 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희망키움통장2 사업은 주거·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 계

층이 목돈 조성을 통하여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원 씩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적립해주고 3년 만기 저축 시 총 720만원과 이자(연 2.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 고창군, 생활체육대회 개최

### 5일~6일까지... 바둑·족구·산악자전거 대회 개최

운동하기 좋은 11월, 고창군에서 오는 5일과 6일 양일간 생활체육 활성화와 동호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다채로운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된다.

오는 5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11회 고창군수배 바둑대회'는 바둑 일반부와 장기 일반부 등 200여 선수가 참여해 2개 부문 7개부 경기가 열리며, 이벤트 행사로 흥장식 프로그램이 초청 기념대국이 펼쳐져 바둑 동호인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5일부터 6일까지 고창군 생활체육경기장에서 열리는 '제9회 고창군수배 전국족구대회'는 전국 150개 클럽 2000여명이 참가해 생활체육 족구의 높은 인기를 실감케 하며 동호인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네트 위에서 유감없이 발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운대 개최되어 산악자전거 대표 이미지 제고와 고창군을 전국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은 주말 대회 기간 동안 전국에서 선수단과 임원, 가족 등 3000여명이 고창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한 대회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역경제와 스포츠 마케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둑대회 개최식은 오는 5일 오전 9시30분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산악자전거대회 개최식은 오는 6일 오전 9시 산악자전거공원에서, 족구대회 개최식은 오는 6일 오전 11시 생활체육경기장에서 개최된다.

또한 5일부터 6일까지 '2016 고창군수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도 전국 동호인들 사이에 우수시설로 호평을 받고 있는 고창군산악자전거공원에서 800여명이 참가한 가

한편 고창군에서는 이번 주말 대회뿐만 아니라 오는 19일과 20일 양일간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제41회 전라북도 회장기 유도대회'가, 20일에는 '제14회 고창 고인돌마라톤대회'가 고창공설운동장에서부터 고창군 일원에서 펼쳐진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 고품질 양과 수확 위한 현장지도 나서

임실군이 최근 양과 정식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고품질 양과 수확을 위한 현장지도에 나섰다.

양과는 월동작물로 벼농사가 끝난 후 정식해 다음해 6월 수확하는 작부체제로 정식시기가 늦어지면 뿌리 활착기간 부족으로 겨울철에 고사하는 확률이 높아 작기 정식이 매우 중요하다.

10월 중·하순부터 11월 상순까지가 정식시기로 묘상에 물을 충분히 주고 뿌리가 잘리지 않도록 묘를 채취하

며, 마르지 않는 상태로 정식해야 한다.

줄기의 굵기가 6~8mm, 키는 25~30cm, 4매 정도의 엽수를 가진 묘가 적당하며, 직각으로 바로 심고 정식 후 15일 간격으로 30mm정도의 관수와 초기 잡초 방제에 노력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무인군 농협과 계약체결로 군 양과 면적이 증가한 만큼 고품질 양과 수확을 위해 정식요령 및 재배 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창군, 판소리학술발표회 열려

### 고창군(군수 박우정)에서 동리 신재효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이벤 주할 열린다.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고창군립도서관 1층 세미나실에서는 '제12회 판소리학술 발표회'가 열린다.

고창군에서 주최하고 판소리학회에서 주관하는 '판소리학술발표회'는 올해 '신재효의 생애사 연구'를 주제로 그의 삶과 판소리를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

5일 오후 3시10분부터는 동학과 신재효의 관계에 대한 연구, 신재효의 관대가에 대한 연구 발표와 토론이 이뤄지며, 오후 4시 40분부터는 영화 '서편제'와 '도리화가'의 비교연구와 주인공으로서의 동리 생애사 연구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6일에는 자유주제발표로 신재효 판소리 사설 개작에 대한 재검토와 다시 보는 판소리의 장르·형식적 성격과 예술적 범주에 대한 연구 발표와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판소리사에서 잊을 수 없는 업적을 남겼던 동리 신재효의 문화과 전기적 자료들을 집대성하고 중요한 민족문화 유산으로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해 온 판소리학술발표회에 관심 있는 많은 군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일 오후 2시부터 고창동리 국악당에서는 '제26회 동리대상' 시상식이 개최되며 올해의 수상자인 정순임 명창과 그의 제자들이 꾸미는 축하공연도 화려하게 펼쳐질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 임실군, 빈집 반값임대주택 사업

임실군이 지난 3월부터 추진한 빈집 활용 반값임대주택 제공사업이 마무리됐다.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제공사업'은 농촌 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저소득층, 귀농·귀촌인, 신흥부부,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5년 동안 시세의 반값으로 거주할 수 있어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군은 올해 1천만원(도비, 군비 50%)의 예산을 투입해 빈집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이 사업을 통해 입주한 귀농인 김씨는 "귀농을 준비하며 겪었던 어려움 중 하나가 집을 구하는 문제였다"며 "농촌지역에서 쾌적하고 저렴한 집을 마련할 수 있어 주거비 부담이 덜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미관 저해 및 위험화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GAP인증확대 교육 실시

순창군이 2일 농민 150여명을 대상으로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 인증 및 친환경농업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농민들이 친환경농업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이날 교육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사무소 김진희 팀장과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안병구 박사를 초청한 가운데 GAP 인증제도, GAP 정책추진방향, 토양 및 농업용수관리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줬다.

특히 친환경농업을 실행하고 있는 농민들이 인증에서부터 관리까지 실무적 지식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는 정부가 우수 농산물의 체계적 관리와 안전성 인증을 위해 농산물의 생산·수확·판매 단계에 이르기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시작했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고자하는 개별농가와 작목반 회원들은 2년에 1회이상 주기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순창군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면 소비자의 신뢰는 높아지고 국제시장에서의 농산물 경쟁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순창=이왕원 기자